

¹ 케어(CARE)는 12월에 스완슨 목사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의 한국 비서인 피터 강(Peter Kang)에게 랜드로버(Land Rover) 차량과 운전기사를 기꺼이 제공하여, 그들이 험한 산길을 넘어 순천까지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새 건물은 약 4분의 3이 완공되었고, 이 글을 쓰는 현재, 조경을 제외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어린이, 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빠른 시일에 재건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수백 분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본관 기숙사 한 동을 "스완슨 기념홀(Swanson Memorial Hall)"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진)

- 맨 위: 거의 완공된 기숙사. 완전한 "U"자 모양입니다.
- 위에서 두 번째: 예배에서 스완슨 목사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이(Lee) 목사, 그 옆에는 이 보육원의 고문인 ²휴 린튼(Hugh Linton) 목사가 있습니다.
- 오른쪽: 스완슨 목사가 현판을 공개합니다.
- 아래: 새로운 별도의 예배당 겸 식당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작은 기와지붕 건물은 새로운 목욕탕입니다. 그 앞에 새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지 어린이들이 임시로 살았던 판잣집 두 채가 보입니다. (옛 닭장!)

1960년도 재정보고서(원본 이미지 참고)

이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증명하는 단연 최고의 연간 재정보고서입니다. 또한 우리 후원자들의 충성심과 너그러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959년 총수입은 194,713.65 달러였으나, 1960년에는 455,144.85달러로 두 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1959년에 42개 보육원을 지원했는데, 1960년에는 71개 보육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18개의 잡지를 통한 광고 효과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대한 모든 기독교인의 신뢰가 커

¹국제 원조 구호 기구(CARE, Cooperate and Relief Everywhere): 1940년대에 교전국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구호 단체이다. 현재는 10여 개국의 멤버들로 '케어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B%90%EC%A1%B0_%EA%B5%AC%ED%98%B8_%EA%B8%B0%EA%B5%AC).

²휴 매킨타이어 린튼(Hugh MacIntyre Linton, 한국명: 인휴, 1926~1984): 미국 개신교 선교사

(https://ko.wikipedia.org/wiki/%ED%9C%B4_%EB%A6%B0%ED%84%B4).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일에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자 모집을 진행했던 저희의 노력에 대한 멋진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현재 80명의 새로운 현지 선교사를 위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불교 승려의 개종

아래 사진은 최근 우리 전도사 중 한 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젊은 불교 승려입니다. ³키즈 글라스(Kees Glas) 선교사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큰 발걸음

저는 12월에 한국에 가서 급한 업무들을 많이 처리했고, 몇몇 새 보육원들의 건축 상황과 불타버린 보육원의 재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 가운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보육원들의 많은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61년 첫 두 달 동안 우리는 1,419명의 어린이가 있는 15개의 보육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새 부지에 완전히 **새로운** 보육원 두 채를 건설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훌륭한 사람들이 전액을 지불한 기념관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새로운 한국 기독교인이 일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어떤 보육원에도 소속되지 않은 약 140명의 어린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미네소타주 덜루스(Duluth)에 있는 한 교회는 자체 보육원을 짓는 비용을 지불할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약 1,500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0명의 새로운 현지 선교사들과 18개의 새로운 보육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사례보다 더 큰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이번에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기회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기쁘게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수천 명의 개인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잡지 광고를 통해 이 복된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것이지

³키즈 글라스(Kees Glas): 스완슨 편지(1958.0515) 참고(2. 미국내 각 기관 대상 후원 어필 서신(P73))

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4한국 정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설립자 겸 이사에게 표창 수여

스완슨 목사는 지난 12월 한국 선교 출장 중 보건사회부 장관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보건사회부 장관뿐만 아니라 교단 지도자, 시장, 도지사 등으로부터 여러 번 서면 표창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⁵라용균 장관(Dr. Yong Gwin Ra)으로부터 보건 사회 분야에서 한국 국민에 기여한 공로로 금상(Gold Medal of Merit)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12월에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현지 비서인 피터 강(Peter Kang)은 12월 22일 아침에 라 장관과의 회동을 요청받았다고 말했고,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관은 나에게 배지를 수여하며 내 정장 상의에 달아 주었고, 그 후 아름다운 자개 장식에 금색 문구가 각인된 옷칠 장식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식 절차가 끝난 후, 그는 ⁶한국의 새 대통령인 유 박사(Dr. Yoo)가 그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로 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며, 라 박사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 동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6,000명이 넘는 고아, 거지 소년, 전쟁 과부들과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에게 베푼 탁월한 봉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매우 은혜롭게 말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한국 경제가 개선되어 그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대화를 영적인 주제로 바꿨습니다. 유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장로교 장로입니다. 그는 장로이면서 설교도 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수년 전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목사가

⁴참고: 대통령 기록관,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archive/president_medialIndex.jsp?activePresident=%EC%9C%A4%EB%B3%B4%EC%84%A0

⁵라용균 장관(Dr. Yong Gwin Ra): 대한민국 제6대 보건사회부 장관(재임 기간: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29일)

(참고 <https://namu.wiki/w/%EB%82%98%EC%9A%A9%EA%B7%A0>)

⁶한국의 새 대통령인 유 박사(Dr. Yoo): (역주)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오기일 것으로 추정(윤보선 대통령 재임 기간: 1960년 8월 13일 ~ 1962년 3월 24일).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의 최고 권한자인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국의 교회를 위해 대통령님의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더 큰 임무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려 하자 그는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매우 은혜로운 기독교 신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의 훌륭한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그 공로를 돌립니다."

7'히어즈 하우(Here's How)

동봉된 소책자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인쇄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배포되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⁸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에서 발행합니다. 스완슨 목사는 이곳의 대표인 ⁹레이 존슨(Ray Johnson)과 25년 동안 교제해 왔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그들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를 위한 후원자 및 기금 모집과 의류 구호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소를 통해 수백 명의 후원자와 수천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몇 년 전, 라이프 메신저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 보육원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소책자를 읽고 나면 더 많은 책자를 주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원하시면 라이프 메신저스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편리한 주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소책자입니다. 충분히 주문하고 영혼을 얻으십시오!

새로운 개척 교회

스완슨 목사가 처음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몇몇 남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지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자신들이 죽으면 "소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믿었

⁷<히어즈 하우(Here's How)>: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저술한 기독교 소책자로서 세계 여러 언어로 6,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
obituary?id=17161595](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obituary?id=17161595)).

⁸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1944년 설립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이며, 레이 존슨 목사가 쓴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여러 언어로 6,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 그 외 많은 기독교 소책자 및 전도지를 출판하였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
obituary?id=17161595](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
obituary?id=17161595)).

⁹레이 월터 존슨(Ray Walter Johnson, 1912/03/03~2010/09/16): 1941년 무디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기독교 출판사 '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를 설립했다.

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큰 "악마 나무"를 숭배합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처음에 그들에게 중고 육군 텐트를 제공했으며, 텐트가 낡자 이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그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자급자족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 건물을 짓는 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척 전도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축복된 사례입니다.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고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또는 보육원에 일반 소포로 보내는 모든 물건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새 상품의 실제 비용, 중고 상품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그리고 지불한 우편료 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양식에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기부했음을 명시하십시오. 한국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공지 사항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 주시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납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굶주릴 때,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음식이 가득 찬 접시와 그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정과 건강, 행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불평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의 눈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시간을 보내고 있

는 이번 1961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영을 실제로 보여주는 실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구에 있는 ¹⁰하워드 모펫 박사(Dr. Howard Moffett)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김진태(Jin Tae Kim) 장로는 새로운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역 장로입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최대한 모았고, 그 자신은 평생 모은 2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이 기부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건축 헌금에 더 기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을 팔고자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의 눈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그러한 희생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가 거절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절해야 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의 태도는 고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희생적인 의지의 전형이며, 한국 교회의 큰 힘을 설명합니다."

¹⁰하워드 모펫(Howard Fergus Moffett, 한국명: 마포삼열(馬浦三烈), 1917~2013): 1917년 8월 16일 평양 신양리에서 한국에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 초대 선교사, 사무엘 모펫(Samuel Austin Moffett, 한국명: 모하사(毛夏士), 장신대 설립자)의 아들이다. 1948년 12월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동산기독병원장과 동산병원장,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협동의료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과 68병상이던 동산의료원을 1,000여 병상의 대형 병원으로 발전시켰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3934&cid=59459&categoryId=70358>).